사무직 여성 90년 여름 통권 1호(창간호)

창간에 부쳐

바른 관점과 현장감 있는 사무직여성 전문지로

한명숙(본회 회장)

지난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은 우리 사무직여성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허구적인 중산층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건강한 노동자 의식을 가진 사무직 여성 노동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굴종적 모습에서 진취적 모습으로, 이기적 모습에서 공동체적 모습으로 삶의 질이 변화되어 참 인간의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간 그렇게도 낯설게 여겨졌던 ‘머리띠’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면서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는 세계관을 체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순종적이며 의존적인 여성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움츠린 모습이 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 뒤틀린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결혼퇴직제의 벽을 깬 산업은행, 조흥은행 선배의 모습이 바로 참다운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얼굴을 잘 가꾸어 똑똑한 남자에게 선택 받으면 그만이라는 허깨비 환상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살맛나는 일터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의욕은 솟아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기쁜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여성들의 모습이, 삶의 질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직 여성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담아낼 매체들이 부족한 것도 역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점이 바로 역량이 부족하지만 사무직 여성 전문지를 발간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전문지는 오늘날 우리 운동 속에서 사무직여성 노동자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이론을 전파하여 인식의 지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터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실천적 대응 방식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갖되 구석구석 묻혀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바른 사무직여성 노동자운동의 정착을 위해 객관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만 이론을 위한 이론지, 구호의 남발로 그치는 이론지가 아니라 바람직한 실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무직여성이 숨쉬는 어느 곳에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과 기쁨, 분노와 함성 등을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진실된 모습,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투영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앙금으로 남아 있는 작은 차이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재벌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차별들을 극복하는 데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나가기보다는 서로 반목하여 비난만 하는 분열적 태도를 벗겨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성차별문제를 전체 노동문제와 별개로 보는 시각, 전체 노동문제 속에 성차별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시각을 거부합니다. 부분보다는 전체를, 그 속에서 특수성을 살려나감으로써 2천5백만 노동자와 가족을 하나로 묶는 튼튼한 끈의 일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여성노동자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약 60만 명으로 20~24세에 이르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세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면 93.3%에 달하는 사무직 여성노동자가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이 60만 명의 사무직여성들이 모집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차별투성이인 조건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끝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①평생노동권의 확보 ②평등한 근로조건의 확보 ③모성보호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 쏟고자 합니다.

우선은, 작은 분량으로 소박하게 시작하지만 운동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 속에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사무직여성 전문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따스한 햇살과 촉촉한 물을 적셔줄 사무직여성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훗날 이 나무의 그늘 밑에서 우리 모두 땀을 식히며 탐스러운 열매를 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